

2017년 가을 [4강]

도시를 품는 교회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산다 - 도시는 중요하고 전략적인 곳

Part III [복음의 상황화] 복음이 현실에 다가서게 하라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화의 상황에 맞추어 전해야 한다

1. 도시에서는 복음화가 어렵다?

(1) 상황화

정의: 복음의 메시지를 새로운 문화에서 불필요하게 외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성경적인 진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전하는 것

- 문화에 적응하고 연결되지만 동시에 문화와 맞서 도전하는 것

상황화가 필요한 이유

- 복음의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공감을 일으키지 못한다.

문화에 대한 이해 (양파와 같은 계층적인 구조: 선교사 린우드 바니)

- 세계관: 세상과 우주, 인간에 대한 이해

가치들의 집합: 무엇이 선하고 참된가에 대한 기준

인간 제도의 집합: 사법적 판단, 교육 제도, 지배 구조 등

문화적 요소: 관습과 행동, 제품과 환경

상황화는 문화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도시 복음화가 어려운 이유

- 다양한 인간 문화가 불편한 긴장 가운데 공존한다

- 문화적 요소들이 복잡하고 혼합됨

(2) 상황화의 역사

과거의 선교: 문화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보조 역할

토착교회운동: 가급적 빨리 현지 지도자들에게 교회 리더십 이양 - 자립, 자치, 자전

1972년 쇼키 커: WCC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 대만 출신 신학자가 처음 상황화라

는 용어 사용: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교회 사역의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WCC 신학자들

- 신약성경 자체가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헬레니즘 세계관에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

- 성경적 계시가 지닌 내면적 핵심과 특정 문화가 맞는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3) 상황화의 위험성

자유주의 신학자

- 문화의 가치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짐

종교적 혼합주의의 구실로 이용됨

- 20세기 들어 문화가 자연주의적이 되었다: 모든 것이 자연적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됨
-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기적 거부

(4) 상황화 작업의 불가피성

D.A.카슨: “어떤 진리도 문화를 뛰어넘어 분명히 표현되는 것은 없다.”

- 모든 문화,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 믿음을 보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하나의 참된 복음은 존재한다. 복음은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5) 상황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

복음이 문화에 너무 많이 적응되거나 너무 적게 적용될 수 있다

문화적 혼합주의: 미국식 삶의 방식을 성경적 기독교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

- 우리 삶의 방식은 성경보다 자본주의와 소비주의가 더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황화를 하지 않으면 방법론 중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토론과 성찰을 위한 질문]

1. 교역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사역 방법을 그대로 도입하기도 한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상황화”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 보자.

2. 가끔 복음주의자들은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상황화를 기독교의 덜 핵심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관점의 위험성은 무엇일까?

2. 균형잡힌 상황화가 필요하다

존 스토티: 기독교의 소통을 성경과 현대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으로 비유

- 도착지가 없는 다리: 설교가 적용이 안됨
 - 출발지가 없는 다리: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않음
- 다리 위에서 양방향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경로: “정경 안의 정경”

-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
- (예)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부에 대한 이해

(1) 다리와 나선형

다리 모델로는 상황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 성경이 문화와 소통하는 것은 표현하지만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더 좋은 모델: 해석학적 나선형

- 성경과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문화에 대한 두 극단적인 생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 문화적 근본주의: 성경을 문화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
사실은 문화의 포로가 되는 것: 자신의 문화 때문에 다른 문화를 거부함
- 문화적 상대주의: 성경이 현대 상황의 개념들로 설명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도 없다
세상 문화와 혼합된다.

[토론과 성찰을 위한 질문]

1. 다른 문화의 사람 (혹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경험이 있는가?

2. 나는 혹시 “정경 안의 정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경시하거나 잘 모르는 성경의 주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3.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

(1) 로마서에 나타난 문화의 복합적 성격

(로마서 1,2장)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 일반 계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인간의 존재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작용한다.

인간의 문화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공공연한 거부가 복합되어 있다.

- 모든 문화는 어둠과 빛의 요소가 있다.
- 세속 문화를 무조건 부도덕하고 악하다고 할 수 없다

복음에 대한 일관적이고 성경적인 이해

- 일반 은총과 타락을 다 이해하여야 한다

(2)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문화 유연성

(고린도전서 9장 19~23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문화적 적응은 사랑의 표현이다. (성경의 예) 덕을 세우기 위해 자유를 제한함

(3) 고린도전서와 성경적 균형

바울은 각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도전하며 그들의 열망을 부각시킨다
(고린도전서 1장)

헬라인 - 지혜가 우상 - 그리스도가 참 지혜임을 증거

유대인 - 사상보다 행동과 결과 중시 (능력, 기적) - 그리스도가 참 능력임을 증거

(4)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설교들

(사도행전 13장 13~43절)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도행전 14장 6~16절) 다신론자인 루스드라 사민들

(사도행전 17장 16~34절) 교육수준이 높은 이방인

(사도행전 21장 27절 ~ 22장 22절) 예루살렘의 적대적인 유대인들

(사도행전 24장 ~ 26장) 총독과 헤롯왕 앞

유대인을 향한 설교: 하나님은 짧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설명,

이방인을 향한 설교: 일반 계시, 하나님을 길게 설명,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

공통점:

- 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선포
- 죄와 타락한 상황을 설명
- 죄의 해결책이 그리스도임을 제시

(5) 성경의 호소

D.A.카슨: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도록 호소할 때 사용되는 동기 부여 방법

-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터의 구원 -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
- 진리가 지닌 매력에 대한 감사 - 채워지지 않는 실존적 열망
-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 -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6) 복음의 상황화

믿을 수 있는 상황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토론과 성찰을 위한 질문]

1. 우리 문화에 내포되어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그 우상의 헛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

2.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동기 부여 방법 중에서 당신이 사용하기에 편한 방법은 무엇인가? 반면에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